

선율과 함께 오전의 여유 ‘11시 음악산책’ 떠나볼까?



광주예당, 하반기 라인업 공개
8월부터 소극장서 총 4회 공연
27일 아나운서 이상협 출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총출동 눈길

오전의 여유와 환기의 시간으로 안내하는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의 하반기 라인업이 31일 공개됐다. 8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프로그램에는 아나운서, 건축가, 사진작가, 영화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콘서트 가이드로 나선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음악과 삶을 잇는 해설과 영상, 연주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총 4회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먼저 오는 27일 방송과 언어 사이를 음악으로 잇는 아나운서 이상협이 ‘당신에게 가까운 바다가 있나요?’라는 주제로 포문을 연다.

그는 KBS 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 DJ, 뉴스7 앵커로 활동 중이다. 아나운서 이외에도 작가, 음악가, 미디어 아티스트로도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인생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전한다.

공연에는 버클리음대 출신의 피아니스트 박상현, 전 광주시립교향악단

바순 연주자 김남훈, 그리고 기타와 보컬 이상협이 깜짝 연주가 더해진다.

9월 24일 공연은 ‘빛을 향한 건축 순례’라는 주제로 예정돼 있으며 건축과 음악을 잇는 건축가 김종진이 출연한다.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종진은 공간과 사람, 건축과 음악을 잇는 건축가이자 건축 이야기로 글로 써내는 작가이기도 하다. 빛과 그림자들이 만드는 무음의 메시지를 클래식 선율에 실어 관객과 함께 건축 순례를 떠난다.

공연은 집묵의 빛(남프랑스 르 토로네 수도원), 예술의 빛(독일 인헬름브로이 미술관), 생명의 빛(멕시코 길라드리 주택), 안식의 빛(스웨덴 우드랜드 묘지)을 주제로 건축과 클래식을 엮어낸다. 그레고리안 성가, 바흐, 베토벤, 스펜하머, 보사노바까지 건축순례길에 올려퍼질 음악은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바이올린 김소연, 김지민, 비올라 권혜린, 첼로 조은강 등 전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구성된 현악 4중주팀이 무대에 선다.

10월 29일에는 사진과 음악을 잇는 사진작가 안웅철이 ‘지금껏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보그, 바자 등 패션 화보는 물론 다큐멘터리, 파인아트를 넘나들며 독일 ECM레코드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커버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웅철, 그의 감각적인 시선을 무대에 옮긴다.

류이치 사카모토, 미샤 마이스키, 키스 자렛, 황병기, 송영훈, 이루마 등 세계적

인 예술가들을 렌즈에 담아온 그는 음악에서 영감을 받고, 음악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진작가다. 그의 인생 사진을 네트work로 분류해 사진과의 인연, 아티스트들과의 인연, 제주의 풍경, 세계 여행 등 빛나는 순간들을 재즈 음악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재즈밴드 프렐류드 리더이자 우리나라 최정상급의 재즈 연주자 고희안, 베이시스트 정용도, 드러머 한용원으로 구성된 고희안 트리오와 싱어송라이터 정란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11월 26일에는 영화와 음악을 잇는 기타리스트이자 영화 음악감독 이병우를 만난다. 기타로 모든 음악을 표현하는 멀티 기타플레이어이자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1호 이병우. 그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클래식 기타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클래식 기타리스트다.

특히 팝, 재즈, 블루스, 록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들을 결합한 작품을 작곡, 연주하고 있는데, 영화 ‘왕의 남자’, ‘마더’, ‘국제시장’ 등 30여편의 영화음악을 만든 거장이기도 하다. 이날 무대에서 ‘기타, 영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영화에 얹힌 이야기와 함께 그의 대표 영화음악을 스트링 콰르텟의 라이브 연주로 생생하게 선사할 예정이다.

운영로 광주예술의전당장은 “해설, 영상, 연주가 어우러진 인문학 콘서트로 정성스럽게 기획한 만큼 일상의 의미를 더하고, 예술과 삶을 더 다채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일본을 대표하는 사운드아트 세계적 거장 료지 이케다가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T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ACC 제공

사운드아트 세계적 거장 ‘료지 이케다’ ACC 온다

내달 27~29일 ‘ACT 페스티벌’
일본 대표 전자음악 작곡가 화제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 개최 예정

사운드아트의 세계적인 거장 ‘료지 이케다(Ryoji Ikeda)’가 9년 만에 ACC를 다시 찾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예술극장 1, 극장3, 복합스튜디오 등에서 ‘ACT 페스티벌 2024’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ACT(Arts & Creative Technology) 페스티벌’은 ACC를 대표하는 융·복합 예술 축제다. ‘만약에?: 미래를 보는 다양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퍼포먼스) △AR 홀로그램 전시 △필름 스크리닝 △강연 △토크 등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강렬한 작품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을 대표하

는 전자음악 작곡가이자 작가인 료지 이케다가 최근 발매 앨범인 ‘울트라트로닉스(ultratronics)’를 기반으로 한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를 연다.

상반기에 유럽투어를 마친 료지 이케다가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공연으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음파, 주파수, 사운드 등의 본질적 특성을 탐구해온 료지 이케다는 지난 2015년 ACC 개관에 맞춰 문화창조원 복합1관에서 개최된 테스트 패턴 [n° 8]을 선보인 이래 9년 만에 다시 ACC를 찾는다.

한편 ‘ACT 페스티벌 2024’의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에는 료지 이케다(Ryoji Ikeda)를 비롯해 404.제로(404.zero), 아키코 나카야마(Akiko Nakayama) & 히로시 와타나베(Hiroshi Watanabe), 피시타쿤(PISITAKUN), 네오지오데시아(NEO GEODESIA) 등 유명 사운드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한다.

도선인 기자

2024광주프린지페스티벌 주제공연 참여시민 모집

15일까지 배우·풍물단 대상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9월에 열릴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주제공연 ‘아스팔트 부르스(부제: 너를 만나고 싶어)’의 무대를 빛낼 30인의 시민배우와 120인의 시민풍물단을 모집한다.

‘아스팔트 부르스’는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체 제작 초연 공연이다.

시민배우와 풍물단(정수)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동형 거리극으로 대형 크레인과 트러스를 이용해 금남로에서 공중무대를 구현할 예정이다.

시놉시스를 살펴보면, 대형바퀴로 표현되는 일상의 통제에 맞서 시민들이 대항하다가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고, 춤을 추던 시민들이 금남로를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극적으로 이어진다.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에서 광주 5월의 공동체 정신을 예술과 흥으로 새



지난해 열린 2023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롭게 빚어 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참여 시민배우들은 공연을 위해 연출진과 네 차례의 사전 워크숍에 참석해야 한다. 또 공연 당일 본공연 포함 전체 리허설에 출연해야 한다.

시민풍물단은 모두 선반 정수로만 모집 중이며 극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커다란

울림을 선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교 풍물단이나 동호회, 아마추어 등 정을 소지한 사람은 연령 상관없이 참여 가능하고 사전 워크숍 없이 당일 전체 리허설과 본 공연에 참여하면 된다.

공연에 참여하는 시민배우와 시민풍물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희망자에 한해 참여확인서를 발급하며, 1365 자원봉사 시간 또한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학생은 오는 8월 15일까지, 온라인 폼(<https://forms.gle/9GaCSF3D7SsNmbwt5>)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8월 21일에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홈페이지(<http://fringefestival.kr>)를 통해 발표한다.

2024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금남로와 광주비엔날레 일대에서, 28일부터 29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펼쳐진다.

도선인 기자

도심 속 바캉스 ‘물과학체험장’ 개장

25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무더운 여름시즌을 맞아 개장한 도심 속바캉스, 국립광주과학관 ‘2024 물과학체험장’이 오는 25일까지 운영된다.

광주 대표 물놀이장으로 손꼽히는 국립광주과학관 물과학체험장은 대형풀장, 워터슬라이드, 롤링워터볼, 페달보트, 바다

분수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자랑한다. 물 속 과학을 주제로 부력의 원리를 체험해볼 수 있는 자율체험공간도 눈길을 끈다.

물과학체험장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3회(화당 2시간, 250명) 운영되며, 온라인 사전예약 또는 현장 발권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생 미만

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재영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연구원은 “물과학체험장 개장 전부터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관심이 뜨겁다”며 “올해는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글루방, 부력체험 등 과학적인 요소를 반영한 차별화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